

조계종 굴복했나?

결사 2차 입재... 교단자정센터, 조계종 경책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3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자성과 쇄신 결사'를 위한 100일 김강경 독송 정진 입재법회'를 봉행하고 2차 정진에 들어갔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스님이 청와대 불자회를 찾아 법문하고, 총무원 청사 앞 한나라당 출입금지 현수막이 철거되는 등 조계종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정부·여당 접촉 불가에 대한 중단지침에 반발하는 가운데 조계종의 초심 회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단자정센터(대표 김원보)는 3월 30일 '불교자주화,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성명서에서 "포교원장의 청와대 불자회 법문, 교구본사 주지들의 중단지침 시정 요구, 총무원 청사의 한나라

당 출입금지 현수막 철거 등 일련의 유화책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주화선언에 대한 중단-사찰-승려-신도 등 각 주체들의 대중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취약한 상태에서 노선전환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행동들이 발생하는 것은 사부대중들에게 혼란과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일련의 유화책들이 MB선거캠프에 참가한 불교계 인사들의 명단이 언론에 노출된 후에 이뤄져 조계종이 정부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닌가의 구심을 갖게 한다"고도 말했다.

조동섭 기자

"이사장직 걸고 해결하겠다"

영담 VS 성관 갈등에 정련 스님 중재 나서



사업전환 문제로 논란을 빚은 동국대 전산원 문제가 이사장 정련 스님에게 일임됐다.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정련)는 3월 29일 본관에서 제262회 이사회의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는 전산원문제해결을위한소위원회(위원장 영담)의 활동보고와 질의응답이 주를 이뤘다.

동국대는 연극영화학과 연계해 동문인 김용태씨가 설립한 아시아브릿지컨텐츠와 위탁경영을 포함한 공동사업을 추진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동국대가 지분 30%를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동국아시아브릿지아카데미' 설립이 예정됐다. 하지만 소위원회가 이사회에 신주인수문제와 전환사채 발행 등과 관련해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문제 삼았다.

이날 회의에서 소위원회는 이사회에 "아시아브릿지컨텐츠는 전산원 위탁 또는 공동경영 능력이 없다"며 전산원 사업전환 원점 재검토와 규정 절차를 벗어나 위법하게 이뤄진 계약 취소 의견을 냈다. 또, 절차 위반한 전산원장 및 관련 교수 징계하고 동국아시아브릿지아카데미와 관련한 추가조사를 법인감사에 일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소위원회의 최종보고를 두고 격론이 계속되자 정련 스님은 "소위원회의 주장에 찬반이 엇갈리니 내가 이사장직을 걸고 (교육부 시한인) 2012년 2월 29일까지 전산원 이전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사회가 이를 의결했다.

이사장 스님의 중재로 이날 회의는 마무리됐지만 전산원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관련자 징계, 소위원회 활동, 위탁사업 업체 선정 등을 두고 상임이사 성관 스님과 이사 영담 스님의 입장이 대척점에 있기 때문이다.

이사 영담 스님이 허위보고 등을 이유로 전산원장 등 관련자 징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상임이사 성관 스님은 이사장스님에게 일임한 만큼 지켜보아야한다는 입장이다.

성관 스님은 "소위원회는 이날 최종보고를 끝으로 활동이 종료됐다"는 견해지만, 영담 스님은 "전산원 문제해결이 미진할 경우 소위원회가 다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아시아브릿지컨텐츠의 전산원 사업 참여에 대해서도 영담 스님은 문제가 된 만큼 아시아브릿지컨텐츠의 사업 참여를 완전히 배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성관 스님은 관련 교수 징계하고 동국아시아브릿지아카데미와 관련한 추가조사를 법인감사에 일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조동섭 기자



김영국 칼럼
前 조계종 총무원장 정책특보

부유한 교단의 지도자들

'출가수행자로서, 위의를 갖추고 있는가'라는 화두가 마곡사 '자성과 쇄신' 결사대회에서 나왔다. 이 화두는 '불제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었는가'로 마무리된다. 그래서 한국불교를 생각해 본다.

불교는 카스트제도라는 전통을 거부함으로써 한때나마 인도에서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는 종교로서의 위치를 누리기도 하였지만 그것이 교단의 한계로 작용해 결국 인도에서 쇠락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

인도의 바라문은 서민의 보시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계급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받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그들이 이미 부유했기 때문이다. 바라문은 왕족, 귀족, 자산가들과 결탁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서민에게 보시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우리 한국불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

물론 오늘날 우리 불교교단은 서민들의 보시를 외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교단이 서민들의 보시를 재가자가 출가자에게 보여주는 깨달음으로 가는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

교단의 일부 출가자들은 서민들의 보시를 수행의 거울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기도나 천도제의 댓가로 당연히 바쳐야 할 공회(供儀)로만 여기고 있다. 따라서 재가자들은 평등한 도반이 아니라 출가자와 다른 계급의 사람으로서 교단 안에 새로운 카스트제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혹시 우리 교단의 일부가 저 바라문처럼 이미 부유하기 때문은 아닌가?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막강한 권력과 재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단 안의 평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불교가 아니다. 불교가 아니라면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거부해야 한다. 불교교단이 평등을 주장해 인도에서 소멸됐다고 해도, 아니 한국사회에서도 소멸될 수 있다고 해도, 평등을 외면하는 불교교단은 마땅히 거부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다시 보고 스스로에게 묻고 답할 필요가 나는 여기에 있다고 본다.

박구원 만평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총회와 선거인단이 선출기로

태고종 중앙총회(의장 영우)는 3월 30일 한국불교전통문화진흥관에서 제105회 임시중앙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회·총법 개정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단 사법기관

인 중앙사정원의 명칭을 호법원(2심)으로 변경하고 1심 기관으로 초심원을 두는 안도 통과됐다. 총무원 부장 및 전문종무기관(위원회)의 임명을 중앙총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징계법에 공소시효가 없이 배상명령 제도를 두기도 했다.

조동섭 기자

이번엔 바뀔 수 있을까?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조계종 선거법 개정 청원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퇴휴)는 3월 29일 조계종 중앙총회 중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법안)에 선거관련 규정을 보완한 '총법 개정 청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소가 제출할 개정 청원서는 △총회의 선거인단수 규정 삭제 △선거 감시기능 강화 △입후보 자격심사 투명화 △선거종립 확대 △후보자 초청 토론회 도입 △바구니스님과 재가자의 참여 확대 등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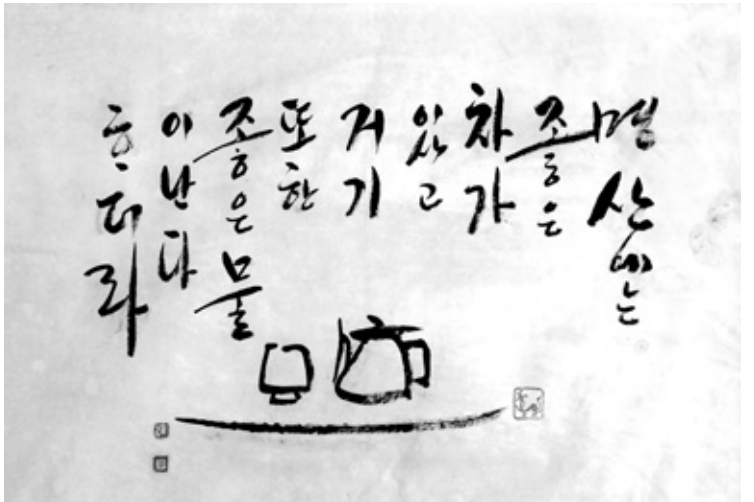
조동섭 기자

천태종, 28일 결산 총회 열어

천태종 총회(의장 도산)는 3월 28일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제89차 정기총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10년도 총무원 세입세출 결

산안 105억 4353만원 및 재단법인 세입세출 결산안 67억 9615만원을 심의·의결했다.

노덕현 기자



회복에서 느끼는 법향

조계종 총책모임 화엄회(회장 성직)와 법화회(회장 정남)는 4월 11~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나눔의 향기, 나눔의 기쁨'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에는 화엄·법화회 스님을 비롯해 원로·중견작가들로부터 기증 받은 400여 작품이 전시된다. 작품작 중에는 경봉·구산·탄허·관음·일타·법정 스님 등 현대 선지식들과 조계종 중흥을 역임했던 청담·서운·서암·월하·해암 스님의 작품, 고산 석정 설경 수안 스님 등 어르신들의 작품도 있다. 사진은 법정 스님의 작품.

조동섭 기자



곤지암 우리절

특별천일지장기도



우리 모두, 불보살님의 크나크신 가호에 흠뻑 젖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 ▶ 기도기간 : 2011년 6월 19일 ~ 2014년 3월 16일 (1002일간)
- ▶ 기도시간 : 새벽기도 04:00 ~ 07:00
사시기도 09:00 ~ 12:00
저녁기도 16:00 ~ 19:00
- ▶ 기도동참 : 백오십만원 이상 (3년간 자동이체 분납 가능)
농협 : 221043-51-030588 이진균

특별천일지장기도에 동참하시면 다음의 혜택을 드립니다

- ▷ 천도재를 무료로 지내드립니다. (향, 화, 축 공양은 별도)
- ▷ 한 가족 중 두 분, 3년간 인등을 밝혀 드립니다.

※ 불기 2555년 부처님 오신날 불전은 일본대지진피해 성금으로 보시합니다



우리절오층석탑(경기도문화재자료 제159호)



우리절지장보살님

우리절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일요법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삼푸다라니 염송법회

■ 문의접수 : 동봉 (스님 : 031-763-4674) / 영허 (법사 : 010-5329-8477, 031-763-8477)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리리 178번지
※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리 전화주시면 우리절 ~ 곤지암터미널 구간을 언제든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연락처 영허법사.